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 TF 가동 무주군-유성선병원 '맞손'

진안군, 분야별 대응방안·추진상황 점검... 민생 안정 총력

진안군은 중동 정세 불안과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 및 물가 불안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민생 안정 대책 추진에 나섰다.

군은 진안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고, 지난 2일 첫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대응방안과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 등 파급 영향을 반영하여 민생물가 안정, 식유가격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 주요 분야별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및 현장 중심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군은 현재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장남(4일·9일) 중심으로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격 동향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구내식당 휴무일을 활용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독려, 전통시장 및 청년몰 점포 7개소에 대한 사용료 30% 감면을 추진 중이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업체당 최대 1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과 연 3% 이하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약 6억 원 규모 중 47%가 집행되



진안군은 진안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고, 지난 2일 첫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대응방안과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는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석유가격 안정 분야에서는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안정 협조를 요청하고 석유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특별점검단을 운영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차관 5부제를 시행하는 등 에너지 절감 대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전쟁 장기화

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 등 기업 애로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해 현장 중심 애로 해소에 나서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물가 동향 관리 강화, 착한가격업소 확대, 에너지 유통 질서 점검, 기업 애로 해소 등 현장 중심 대응을 지속 추진하며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주인 의료 접근성 향상·의료 서비스 제공 위해 협력

무주군과 유성선병원이 지역 주민 의료 접근성 향상과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지난 3일 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유성선병원과 전문 진료와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민들이 기존보다 더 빠르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한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특히 상호 환자 의뢰 및 진료 편의



제공, 최신 의학 정보 교류, 시설·장비·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제25회 진안읍민의 장 수상자 4명 선정

진안군 진안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진안읍민의 장 심사위원회(위원장 정상식)를 열고 제25회 진안읍민의 날을 맞이해 진안읍민의 장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수상자는 △공익장 이우석(88) △산업근로장 신기환(57) △애향장 전호균(58) △효열장 김송자(74) 씨 등 4명이다.

공익장에 선정된 이우석 씨는 용지마을 이장으로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에 앞장서며 주민 화합을 위해 노력하였고 진안읍 이장협의회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하며 행정과 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가교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여 단체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근로장에 선정된 신기환 씨는

무진장축협 진안군대의원 회장을 지내며 축산 농가의 애로사항 해결과 고품질 한우 생산에 앞장섰다. 또한 축산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주변에 공유하며 청년 축산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등 축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애향장에 선정된 전호균 씨는 재전 진안읍향우회 총무로서 출향인과 고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고향 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이 높게 평가됐다.

효열장에 선정된 김송자 씨는 오랜 시간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하며 효행을 실천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었으며, 평소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주민 간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촌 안정적 소득구조 형성 강조

동창옥 진안군수 예비후보,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 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금 동시에 받아야" 주장

진안군수에 출마한 동창옥 더불어민주당 전국농민위원회 부위원장(진안군의회 의장)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과 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창옥 예비후보는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는 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는 법률은 농촌의 안정적인



소득구조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촌현실의 농업소득 구조에서는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과 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금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웰니스 관광지 명소 '치유의숲' 재개장

장수군은 천천면 외용자연휴양림에 있는 치유의숲이 재개장에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재개장은 2025년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이후 처음으로, 보다 다채롭고 체계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갖추고 방문객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그린장수 치유의숲은 심신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전문 힐링 공간으로 운영



되며, 자연 속에서의 치유 효과를 극대화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숲속 환경을 활용해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적 안정을 돕는 숲테라피를 비롯해, 참가자들이 내면의 평화를 찾고 깊은 이완 상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명상 테라피, 발바닥 자극을 통해 신체 활력을 높이는 황토길 맨발걷기 체험 등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사회조사 실시

장수군은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군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사회조사 를 실시한다.

사회조사는 군민의 주관적 의식과 사회적 관심사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과 평가,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국가데이터처가 선정된

관내 810개 표본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와 가구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식 조사, 인터넷 조사 방식을 병행해 실시된다.

장수군은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원 20명을 투입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응답률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전북대와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무주군이 전북대학교와 협력해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올해는 참여 대상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무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무주초등학교 등 지역 내 6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12월까지 150명을 대상으로 '과학문화 탐험대'를 주제로 전통과 현대 과학을 아우르는 단청 속에 숨은 과학, '하늘을 나는 방패연', '관플루트로 K-pop을 듣다' 등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첨단과학기술을 토대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실험·체험을 하며 과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교실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돼 교육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학생들에게도 공평한 학습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 고품질 딸기 위한 스마트 LED 시스템 구축

진안군은 최근 이상기상으로 인한 일조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한 '일사량 감응 스마트 LED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3,800만 원을 포함한 3억 4,000만 원을 투입해 겨울철 일조량이 부족한 딸기 시설하우스 7개소에 '일사량 감응 스마트 LED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일사량 감응 스마트 LED 시스템이란 외부 일사량이 부족시 광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LED 디밍컨트롤러(밝기조절장치)를 활용해 LED 밝기를 자동 조절한다.

특히 잦은 폭설, 흐린 날씨 등 겨울철 저일조 상황에서도 딸기 생육에 최적화된 광원을 제공하여 고품질 딸기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직접적인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